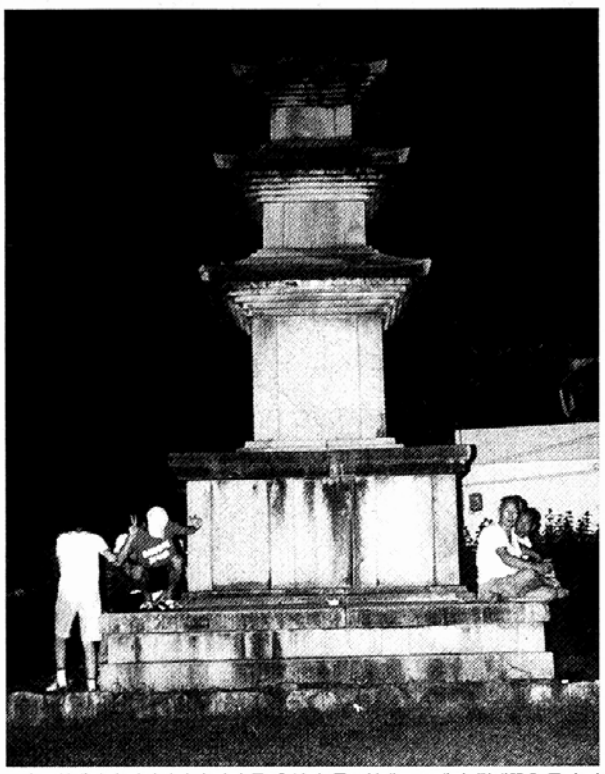
## 창녕 술정리 東 3층석탑

# 말로만 '국보' …훼손 심각

### 기단부서 술판 예삿일…틈새마다 담배꽁초

#### 지자체 보존 무관심



◇공원벤치가 되어버린 술정리 동3층석탑. 국보임에도 쓰레기, 담배꽁초 등이 여기저기 널리고 보호울타리마저 허물어져 있는 등 훼손이 심각하다.

국보 34호로 지정된 경남 창녕읍 술정리 동(東)3층석탑이 관리 소홀과 인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동3층석탑은 서기 8세기경인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고 65년 탑을 해체 수리했다. 해체 수리시 3층 탑신상면의 방형사리공에서 청동향로용기, 사리병, 사리 7과가 발견된 이 탑은 1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西)탑과는 달리 규모가 크며 통일 신라 초기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장중 명쾌한 탑의 모습이 불국사 석가탑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이 탑은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훼손이 예사로 행해지면서 방치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버린 탑은 3층 석탑 기단에 시래기가 널리고, 마을 노인들은 기단부에 올라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게 예사다. 심지어 탑 위에까지 올라가 뛰어내리는 장난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 탑의 파손과 변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탑 연결부 틈새에 담배꽁초가 끼여 있고 탑신 여기저기에 아이들이 장난삼아 붙인 스티커 자국이 보기 흉한 얼룩을 만들고 있다. 탑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친 울타리는 사람들의 잦은 출입으로 받침돌이 빠져 허물어져 가고 쓰레기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보인 탑이 이렇게 방치되자 4년 전부터 동탑과 서탑에 제사를 지내오며 동3층석탑 보호와 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던 혜일(창녕 관음정사)스님은 7월 20일 창녕군청에 국보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창녕군청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계몽하겠다'는 기본 입장 외에는 뚜렷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혜일 스님은 매일 탑 앞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신도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매일 탑돌이를 하는 한편 군청, 창녕불일회, 창년발전위원회 등을 찾아 동3층석탑의 격에 맞는 관리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스님은 "15일 국보의 소중함을 창녕내 사찰과 주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모임을 석탑 앞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해인사'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줄까

#### 16개 단체 16일 토론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16개 불교단체는 1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의 후손에게 해인사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란 주제로 해인사 불사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서는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이 문화적 측면, 이병인 밀양대 교수가 환경적 측면, 효림 스님(실천승가회 부의장)이 역사 및 수행전통 분야,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이 사회적 측면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02)733-7277

김재경 기자

### '참나 찾는 여행'

#### 봉은선원 수련회 16~18일

봉은사(주지 원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봉은선원에서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한 천 수련회를 개최한다.

일상의 찌든 때를 벗고 자신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선 수련회는 16일 오후 1시 입재를 시작으로 18일 오후 2시까지 수면시간 없이 계속되며, 참선수련을 중심으로 선특강, 발우공양, 선체조, 108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련회에 입소한 불자들은 수련회 회향 때까지 선방을 나올 수 없다. (02)516-5652 한명우 기자

# 분향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연기속 발암물질" 대만교수 연구보고
### 국내유통 수입향에도 화학성분 첨가
### 법당 자주 환기- 천연향 보급 '대안'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 최신호에 발표된 "향(香)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만 국립청궁(成功)대학의 타 창린 박사는 1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찰에서 피우는 향이 정신적인 위안을 주지만 그 연기 속에 상당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며 "향을 피운 사찰내부의 PAH(다환방향족탄수화물) 농도는 바깥 공기보다 19배 높고, 특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수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사는 가정보다 45배나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향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향은 중국·대만의 향 보다 크기가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하고 한번 사용량도 3분의 1에 불과해 평균 30분의 1 이하의 연기가 발생, 향 연기 속의 유해성분도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통향 제조업체들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및 수입향은 대부분 화학성분이 첨가돼 장시간 향을 맡을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뉴 사이언티스트 보도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는 대전대 한의과대학 송태원 교수는 "인조향 제조공정시 이용되는 벤젠 추출법은 물론 인식향산 등 방부제, 무스크 등 인조향수유, 인조 색소 등 제조시 첨가되는 화학성분이 연소될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95년부터 수입향과 인조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전통향을 연구·보급하고 있는 '향기를 찾는 사람들' 박희준 회장은 "모든 향을 태울 경우 소량(인체에 무해한)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지만 합성원료가 첨가된 인조향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환기가 되는 법당에서 소량의 천연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향시장의 70~80%는 인도, 일본,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외국산 수입향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 일본·인도산 향들은 화학 합성원료가 첨가된 인조향들이 대부분이어서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용일지라도 전통향을 제외하고는 합성원료가 일부나마 사용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가 우리 향 공장들이 건강에 좋은 천연향을 만들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정신을 맑게 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통향이 되살아나 인조향이 불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광주 종교인들 조선족 돕기 '앞장'

#### 평화회의, 북경등 방문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 7대 주요 종교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종교인평화회의가 중국 조선족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종교인평화회의가 조선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방문 일정을 확정한 것. 조선족 복지센터인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0~25일 북경과 심양을 방문, 지역설명회를 갖고 현지 관련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북경의 조선족 마을과 연길의 조선족피해자협회를 찾는 데 이어 화룡지역의 '기아대책기구 농장'에서 후원방안을 논의하고 연변 두레농장과 심양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종교인평화회의는 상설연락체계를 갖추고 구체적 후원방법에 대해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한편 종교인평화회의는 지난해 처음 개최했던 종교인합창제를 올해는 '조선족 동포에게 사랑과 희망을'이라는 표어 아래 오는 9월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로 꾸밀 계획이다. 종교간 친교에서, 나아가 사진 및 비디오를 통해 조선족 동포들의 열악하고 위태롭기까지 한 처지를 적극 알리고 구체적인 후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정강 종교인평화회의 사무국장은 "조선족 돕기운동이 일회성, 전시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종교인들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 도와주세요

#### 폐암고생 네팔노동자



부처님 탄생국인 네팔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으나 수술비가 없어 애태우고 있다.

지난 94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도자기 철강 가구 네트-볼트 플라스틱 봉제 청바지 공장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근무해 온 선재 구릉(Sanjay Kumar Gurung 31)은 지난 7월 28일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폐암초기 진단을 통보받았지만,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없어 막막한 실정이다.

현재 '네팔불자모임'(회장 인드라 구릉) 회원들이 뒤늦게 선재의 병을 알고 모금을 시작하고 경불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에서도 백방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뛰고 있지만 막대한 치료비에는 미흡한 실정. 그러나 불행중 다행히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직 전이되지 않아 빠른 시일내 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02)3147-2600, 016-207-8017 김재경 기자

### "백두대간 불교문화 조사"

#### 새불교환경단체 강연회

오는 9월6일 출범하는 (가칭)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백두대간과 사찰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갖고 △백두대간의 사찰 문화유적 실태조사 △불교환경운동론 정립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 대응조치 등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원기 백두대간보존회 회장은 "백두대간에 사찰이 없었다면 백두대간의 천연림 보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나무하나 돌하나 움직일 때도 깊이 생각했던 과거의 자연애호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재철 녹색연합생태보전국장은 "환경부가 내년까지 진행하는 백두대간 실태조사에는 범위설정과 권역설정 등만을 포함한 반면 문화역사적인 부분이 빠져있어 안타깝다"며 "사찰과 산을 매개로 한 사람들의 문화사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 사찰문화재 절도범 무더기 실형선고

전국 유명사찰의 복장유물 등을 훔쳐 팔아온 절도범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 부장판사)는 3일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를 훔치거나 밀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모 씨와 추모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와 특수절도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물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 씨 등 나머지 일당 1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서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상 안의 복장유물까지 훔쳐팔아 종교적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한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마음고운 禪房
불교 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 스님 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47-9114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0m×450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과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